

증권업계, 새내기 CEO 돌풍... IB 업고 첫 해 성적 A+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의 1조 코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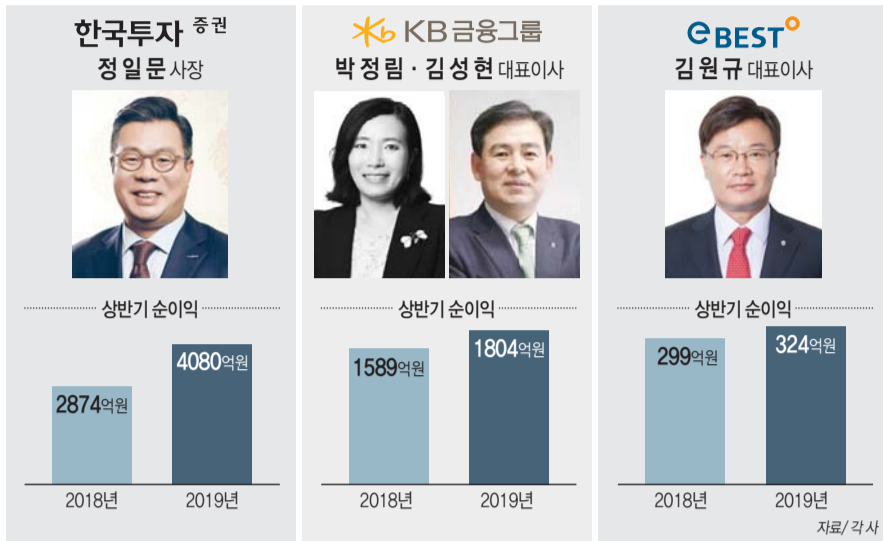
KB증권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

합병 후 반기 기준 최대 성적 기록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원규 대표이사

IB 부문 강화로 업계 상위권 수익

올해 취임한 증권사 CEO 상반기 성적표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대내외 악재 속 견조한 실적을 내놨다. 특히 올해 취임한 최고경영자(CEO)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취임 당시 공언했던 목표들도 순항 중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KB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3개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평균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업황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올해 CEO가 새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 '사상 최대' 한투·KB

한국투자증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4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0% 늘어났다. 정일문 사장 취임 후 1, 2분기 연속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 중이다.

취임 당시 목표로 삼았던 '영업이익

1조 달성'도 코앞이다.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186억원이다. 상반기만큼만 하면 연내 영업이익 1조 달성 첫 증권사 타이틀을 달게 된다.

KB증권은 '합병 후' 최대 실적을 내놨다.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5% 늘어난 1804억원을 기록했다. 올 초 김성현·박정림 투톱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IB와 자산관리(WM) 부문을 '따로 또 같이' 키우겠다는 전략이 적중했다.

KB증권의 상반기 IB순이익은 799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IB 조직 개편과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면서 IB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WM 역시 순조롭다. 채권형 상품 판매에서 소위 '대박'을 치면서 지난해 말 20조4000억원이던 금융상품 잔액은 올 6월 말 25조6000억원으로 약 25%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 5월 KB증권의 숙원사업이었던 발행어음 인가로 영업의 보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미 2개월 만에 약 8000억원어치의 발행어음 잔고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현·박정림 공동대표도 경영행보를 본격화하게 됐다

◆ '체질강화' 이베스트

대형 증권사의 실적 잔치 속 중소형 증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상

반기보다 8.4% 늘어난 324억원을 기록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진 속 실적 성장을 이끈 것은 IB 부문이라는 평가다. 올해 3월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IB 강화다. 이를 위해 IB사업 본부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IB 사업부 대표(부사장)를 새로 영입기도 했다.

자본은 작지만 수익성 부문에서는 업계 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28위였던 업계 당기순이익 순위는 단숨에 19위권으로 뛰어올랐다. 해당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7%에서 14.5%로 높아졌다.

다만 액면가 수준으로 내려온 현주가(5000원) 회복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8000원대였던 주가는 5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조합원이 봉이냐'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청약통장 가입 2500만 돌파... 로또 당첨 기대

지난해 무주택자 위주 청약제 개편
당첨 확률 기대 높아져 가입자 증대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25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통장 가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가 2506만126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9만932명 늘어나 2326만 8991명을 기록했다. 올해 초(2267만 7240명)보다 9만8625명 늘어난 규모다. 매달 10만명 가량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든 셈이다.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된 시기다.



특히 지난달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679명 늘어나 전달(6940명)대비 2.84배 늘었다.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청약 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공공주택 수직정원·식물정화벤치 시범 도입

LH

에너지 절감·미세먼지 정화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수직 정원과 식물정화 벤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직 정원은 건축물의 벽면에 수직으로 초목을 심어 재배하는 녹화공법이다. 자연 친화적인 데다 건축물 미관 개선, 열섬 현상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뛰어나다.

수직 정원은 관리가 어려워 그간 상업시설이나 도입됐지만 LH는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물을 댈 수 있는 자동화 관수 시스템을 적용해 공공주택에도 수직 정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 대상 단지는 화성봉담2 A 2블록과 양주회천 A17블록이다. 커뮤니티센터 등에 추운 겨울도 이겨내는 식물이 식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주택 입주민들



LH 수직정원 예시도.

/LH

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수직 정원 외에도 식물정화 벤치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식물정화 벤치는 식물과 벤치가 조합된 복합 휴게공간이다. 식물의 자연적인 정화 효과에 더해 전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이 적용돼 나무 105그루가 있는 작은 숲과 같은 공기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식물정화 벤치는 대구연경 S1블록에 시범 도입되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기능도 갖추게 된다.

/연합뉴스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형펀드 소폭 반등

주간펀드동향

국내 증시가 소폭 반등했지만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펀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의 강세는 이어졌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8월9일~14일)간 전주 대비 1.50% 상승한 1938.37포인트로 마감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세척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품목 언급이 없었지만 한국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졌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2.98% 내렸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2.11%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펀드는 0.75% 올랐다. 모든 유형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인덱스주식형펀드가 0.99% 올랐다. 전주 대비 소폭 반등에 힘입어 74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순자산은 479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7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한 주간 친디아(중국+인도)지역의 펀드가 1.75%로 수위에 올

랐으며, 북미(1.61%), 브라질(1.28%)이 뒤를 이었다. 해외주식형에서는 한 주간 610억원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순자산은 1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채권 시장의 강세는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뤄졌다. 국내채권형펀드는 전주보다 3420억원 자금이 유입됐고, 해외채권형펀드는 2180억원이 순유입됐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3.40%)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헬스케어섹터인 '블랙록월드헬스사 이언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펀드가 2.89%로 수위를 차지했다.

/손영지 기자